

“올해 설 명절 선물은 ‘천년이음 나주배’로”

시, 공급상황 점검…유통과정 애로사항 청취 품질 관리·소비자 신뢰 강화…위상 공고화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명절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한 나주배의 안정적인 출하와 품질 관리를 위해 선과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설 명절 성수기 나주배 출하 물량의 준비 상황과 선과 작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대목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나주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선과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나주

시지부장, 세지농협조합장,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비롯해 나주시 농축산 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윤병태 시장은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선과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출하 물량 규모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근로자 안전과 효율적인 선과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설 명절 나주배 선과 작업량은 지난해 1541t 대비 31% 증가한 물량으로 명절 소비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출하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시는 선과, 포장, 물류 전 과정에서 품질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근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나주배 선과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리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명절 대표 과일로서 나주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천년이음 나주배’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접목한 명품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선물용 과일로도 꾸준한 호응을 얻

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주배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땀과 정성이 더해진 전국적인 명절 대표 과일”이라며 “설 명절 기간에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나주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양 ‘달빛365’ 관광활성화 사업 본격화



광양시는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일원을 연중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달빛365’ 관광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임곡지등(안산)으로 제작한 푸드트럭 운영 모습

광양시는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일원을 연중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달빛365’ 관광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화섬·해비치로 광장은 이순신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수변공간으로, 바다와 휴양의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자수와 넓은 잔디, 현무암 담장이 어우러져 아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무빙라이트와 미디어 파사드 등 경관조명이 더해져 빛의 파노라마를 구현하고 야간에는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시, 27일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일원 개장

‘달빛365’는 삼화섬·해비치로 광장의 은은한 야경과 감성을 상징하는 ‘달빛’과 연중 운영을 뜻하는 ‘365’를 결합한 명칭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처럼 찾을 수 있는 감성 관광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오는 27일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달빛365’를 개장하고 약 3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푸드트럭·플리마켓·버스킹이 어우러진 ‘달

빛365 불금day’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운영자는 2월 중 공개 모집하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 입점을 지원해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시는 감성 조명과 버스킹이 어우러진 ‘낭만 산책로’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볼거리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공간을 조성

해. ‘달빛365’를 광양을 대표하는 연중 야간 관광 콘텐츠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달빛365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감성 관광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먹거리·문화·야경이 어우러진 체류형 콘텐츠 확충으로 광양의 야간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래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달콤한 고구마소 듬뿍’ 해남꿀구마떡 출시

지역 대표 프리미엄 떡…해남미소 등서 판매

해남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해남고구마를 이용한 떡 브랜드인 ‘해남꿀구마떡’을 선보인다.

지난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가공식품으로, 소가 들어간 인절미 종류의 오징어떡이다. 찹쌀 반죽에 해남고구마를 듬뿍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9월부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남군 온라인 쇼룸몰인 해남미소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소비자가 6개입 1박스에 1만5000원으로, 설맞이 할인가로 1만2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12~13일에는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식 홍보 행사도 갖는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



가공식품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고구마를 순채떡, 고구마오징어떡, 고구마꿀떡 3종의 고구마떡을 개발했다.

앞으로 떡뿐만 아니라 고구마칩, 고구마 페이스트 활용 가공식품 개발도 확대해 지역 고구마 가공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담양, ‘마을 공동빨래방 시범사업’ 추진

고향사랑기금 활용…고령화 지역 맞춤형 복지

담양군 고서면이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빨래방이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마을공동빨래방은 전남도와 담양군이 공동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대형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다.

고서면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성된 마을공동빨래방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고서면 주민자치회와 적십

자봉사회가 협력 운영하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점을 보완 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나속자 고서면장은 “마을공동빨래방이 고서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적십자봉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마을공동빨래방 지원사업을 비롯해 병원동행 및 퇴원환자 돌봄사업, 청소년 영어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사업, 아동청소년 마음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곡성, 노인등록 통계 구축

노인정책 실효성 기반 강화

곡성군이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65세 이상 인구(2026년 1월 기준)는 1만130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41.21%를 차지하고 있다.

돌봄, 일자리, 건강, 주거 등 노인 관련 정책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군은 고령화 현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화 노인등록 통계를 구축한다. 이번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중 작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노인등록 통계를 향후 노인 정책 수립과 개선에 폭넓게 활용해 돌봄·건강·일자리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김유현 기자 hnnews1@

장성, 18일까지 농특산물 ‘통 큰 세일’

장성물 20% 할인…서울 등 판촉 행사도

장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군은 18일까지 공식 쇼룸몰인 ‘장성물’을 통해 20% 할인 판매한다. 터줏대감 격인 사과, 배, 한돈 선물 세트 등을 3만~5만원대에 살 수 있다.

‘과일의 고장’ 장성군의 명성을 이어 ‘장성 레몬’ 제품도 출시됐다.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착즙한 100% 레몬즙 선물 세

트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과 동시에 5000원 추가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장성 과일을 구입할 수 있다.

명품 장성 과일을 직접 살 수 있는 ‘오프리인 판촉 행사’도 논길을 끈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상·하행선 행복장터를 통해 장성 농산물을 알리고 있다. 장성로컬푸드 점단직매장에서선

목포해경, 설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목포해양경찰서가 설 연휴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을 맞아 연안·항만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설 연휴 안전대책기간과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3월 31일까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 기간 해양이 용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

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목포여객터미널과 신안 송공항, 남강 선착장, 암태파출소 등 연안과 파출소 26곳을 대상으로 연안 위험요소, 파출소 구조 장비 관리상태, 구조세력의 현장 즉응태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에는 ‘과승’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 예방 차원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유종준 기자

160가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개량(2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 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3월 말부터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으로 개인이 별도로 철거·처리 후 자원받는 방식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완도=김해국 기자